

‘책 읽는 청주’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Reading Cheongju’ Reading Promotion Campaign

윤 정 옥 (Yoon Cheong-Ok)*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현황 |
| 2. 선행 연구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23회 진행된 ‘책 읽는 청주’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책 읽는 청주’의 책 선정기준, 실제 선정 책 31권의 특성 및 독서토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책 읽는 청주’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강점을 갖지만, 책 선정기준 변경의 타당성 부족, 연령별 선정 책의 분산, 책들의 주제적 일관성 결여, 가시적 및 대중적 베스트셀러의 선호 경향, 개별 참여자의 지속성 확인 곤란, 사서의 기획자 역할 집중으로 직접적 토론과 소통 제한, 관 주도형 행사 진행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ading Cheongju’ which launched as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in 2006 and conducted 23 times for the past 15 years. The analysis of the selection criteria of ‘one book’, 31 selected books, and the activity of reading and discussion shows the strength of continuity and stability of ‘Reading Cheongju’. However, the following weaknesses need to be improved on: the inadequate change in book selection criteria, selection of several books according to age groups instead of ‘One Book’, lack of consistency in themes of selected books, preference for best-sellers and popular works,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continuance of individual participation in reading and discussion, librarians’ role limited to organizing programs, and lacking in direct participation in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and events and programs only led by Cheongju City Library without any cooperation from community members.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 ‘책 읽는 청주’, 책 선정기준, 독서운동 지속성, ‘한 권의 책’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Community Mass Reading Campaign, ‘Reading Cheongju’, Book Selection Criteria, Continuity of Reading Promotion, ‘One Book’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ISNI 0000 0000 4145 6478)

논문접수일자: 2021년 1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2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9-83,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1.059>

1. 머리말

1.1 연구의 목적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지역 사회 대중독서운동은 지난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서 Seattle Public Library가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한 이래 20여 년 동안 미국 국내는 물론 다른 여러 나라에도 확산되어, 공공도서관이 주도하는 매우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독서운동의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2017년 4월 기준 미국 Library of Congress Center for the Books가 운영하는 ‘One Book, One Community’ 웹사이트에는 미국 내에서 모두 604개의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 이 독서운동이 진행되었던 기록을 볼 수 있다(윤정옥 2017, 47). 2020년 현재 시애틀 시의 ‘Seattle Reads’(2004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꿈)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의 Chicago Public Library가 주관하는 ‘One Book, One Chicago’,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 시에서 Santa Monica Public Library가 주관하는 ‘Santa Monica Reads’(Santa Monica Public Library 2020) 같은 주요 도시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꾸준히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모형을 채택하여 2006년 시작된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he Big Read’ 지역사회 문학독서 이니셔티브(이하 NEA Big Read라 부름)는 2021년 기준 1,400여 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었다(NEA Big Read 2021a). 앞에서

언급한 ‘Santa Monica Reads’가 2014년에는 NEA의 기금을 받아 ‘The Big Read and Santa Monica Reads’로 진행되었고, 다시 2015년부터 원래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 지역사회에서 기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NEA Big Read와 결합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처음 충남 서산시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진행되었다.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In’에 따르면 각각 시작 시기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2020년까지 60여 개 지역사회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진행하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특히 2004년에 시작된 부산의 ‘원 북 원 부산’이나 원주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된 프로그램들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모형을 채택하여 지난 2006년 가을 충북 청주에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하 2011년 변경된 명칭인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부름) 주관으로 시작된 ‘책 읽는 청주 --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이하 ‘책 읽는 청주’라고 부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책 읽는 청주’는 2006년 제1회 이후 매년 1-2회 진행되어 2020년 제23회까지 진행되었고, 초기부터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인지도와 위상 개선 및 독서와 토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윤정옥 2008).

이 연구에서는 십여 년 간 지속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고유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특별히 책의 선정 및 독서와 토론에 관련된 그동안 성과, 변화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이 연구를 위해서 ‘책 읽는 청주’의 제1회 진행연도인 2006년부터 제22회 진행연도인 2019년까지 발행된 사업보고서 및 선정 책의 워크북 등 문헌자료, 국내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관련 통계, 논문 및 기사, 웹사이트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책 읽는 청주’의 사례 연구로 진행되며, 기존 기록물 등 문헌자료의 내용분석이 주가 되며, 통계 같은 계량적 데이터 분석 외 현황의 질적 분석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2. 선행 연구

국내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는 2003년 충남 서산시에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윤정옥은 초기부터 국내·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여러 사례를 분석하였고,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지속성, 선정 책의 특성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2008, 2009, 2012) 특히 최근 지난 20년간 진행된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선정 책(2017)과 NEA의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 10년 간 선

정 책(2018)을 분석하여, 책 선정에 드러난 “초기에 지향하던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통합 같은 주제들을 넘어서서, 점점 더 보다 근본적인 환경, 빈곤, 평화, 인권,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삶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되는 집합적 특성... 및 ... 지역사회를 벗어난 더 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발현”(2017, 62)이라고 해석했다.

이용재는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정책 방향 및 발전전략을 제안하였고(2006), 부산시의 ‘원 북 원 부산’의 초기 기획부터 안정화까지의 실행 및 운영의 지향점을 분석하였다(2008).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 473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책의 선정 횟수, 출판연도, 저자, 갈래(장르), 소재(내용) 등 측면에서 시간대서 선호, 어린이대상 도서 선호, 지역성 반영 등 경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국내 여러 ‘한 책, 한 도시’ 운동이 원래 이 지역사회 독서운동 모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며, 이러한 인식의 제한점이 책의 선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관련 연구는 많지 않지만, ‘원 북 원 부산’을 다룬 이국환(2018)의 사례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는 문헌 조사와 더불어 ‘원 북 원 부산’ 운동의 실무자, 운영위원, 선정위원 대상의 인터뷰를 반영하여, 지난 2004년부터 연구 시점까지 15년간 진행된 ‘원 북 원 부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행 책 선정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① 성인, 청소년에게 적합한 책... ② 독서 이후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적합한 책(독서토론, 글쓰기, 저자와의 만남, 심포지엄, 문화프로그램, 연극, 영화, 낭

송희 등)... ③ 국내 저자의 책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과 연관이 있는 책... ④ 지역사회 구성원이 누구나 토론할 만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책”(이국환 2018, 97-99)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 북 원 부산’의 지속성, 책 선정과정의 체계성,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등 도서관계 및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모범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는 ‘원 북 원 부산’의 공과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윤유라(2017)는 2007년부터 연구 시점까지 10년 간 모두 19권의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상남도 김해시의 ‘김해의 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김해의 책’ 추진협의회의 사업보고서(2009~2015년) 및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사업담당자와 인터뷰도 진행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해의 책’은 첫해만 최인호 작가의 『제4의 제국』을 한 권의 책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매년 “‘독서문화의 흐름’과 ‘지역의 분위기’, ‘김해의 책’ 추진협의회의 문제의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일반 대상 대표도서와 어린이도서를 구분하여 책을 선정하였다(윤유라 2017, 197-8). 연구자는 ‘김해의 책’ 사업에서 책 선정과 프로그램 진행에 성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김해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역적 특징을 담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업 평가의 다양성과 객관성 확보 및 도서관 등 관련 인프라의 정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십여

년 이상 지속한 지역사회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개별 사례들의 체계적 분석 및 국내 도서관 생태계 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일반적 경향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좀 더 수행될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3.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현황

3.1 ‘책 읽는 청주’의 취지와 지속성

‘책 읽는 청주’는 2006년 가을 출범하였다. 청주시에 2003년 처음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건립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청주의 시민들로 하여금, 새롭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윤정옥 2008, 3)에 따라 청주를 위한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책 읽는 청주’는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의 독서와 토론으로 “책과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양” 및 “지역사회 주민의 공감... 및 일체감 제고”를 지향하며 출범하였다. 또한 “시민 대상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 및 “성인대중의 독서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며, “공공도서관의 인지도와 사회 참여도”를 높이며 “시민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확장”하고자 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4). 이를 위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독서관장 활동 및 책과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결합한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인쇄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은 ‘읽기’의 경험을 확장” 시킨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처음부터 성인 대중 대상으로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한 독서와 토론의 집중성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고, 2020년 시점에도 이러한 취지와 목표는 변함없는 기조로 삼고 있다.

‘책 읽는 청주’는 2006년 초반 준비 단계부터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국내 도입과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한국도서관협회의 전문가 및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들로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와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03)이 제시한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의 표준적 실천지침을 상당부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는 상이한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의 역할,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 시민의 참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청주라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독서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하였다(윤정옥 2008).

‘책 읽는 청주’는 2006년 가을 제1회 행사 이후, 이듬해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연 2회 봄과 가을에 진행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 1회로 축소 조정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시 연 2회 진행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연 1회만 개최되었다. 그동안 사오년 간격으로 연 1회에서 2회로 진행 횟수가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15년 간 꾸준히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대중독서운동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책 읽는 청주’는 처음부터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와 청주교육지원청이 공동추진하며, 청주시립도서관이 기획 및 운영 전 과정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청

주시립도서관 2019, 3).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에는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지역의 학계, 언론계 및 문화계 인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책 읽는 청주’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청주시 지역 및 공공도서관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청주시는 2006년 당시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충북도립도서관 1개관과 더불어 청주 시 지자체 소속 청주시립정보도서관¹⁾ 청주기적의도서관 및 북부도서관의 3개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인구 63만 규모의 소도시였다. 청주시는 지난 2012년 청원군과 통합하였고, 2020년 12월 기준 총인구는 857,315명으로 증가하였다(청주시 2020). 청주시 소속 공공도서관은 2020년 11월 기준 모두 13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공공도서관의 전체 장서 규모는 1,496,682권에 달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20). 지난 십여 년 사이 청주시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인구 1인 당 향유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서 규모도 확장되었다.

3.2 책의 선정

3.2.1 책 선정 기준의 변화

‘책 읽는 청주’의 취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처음 채택한 책의 선정 기준은 “첫째, 되도록 청주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 책, 둘째, 다양한 연령층, 관심 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셋째, 토론이 가능한 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책 읽는 청주’ 도서선정위원회

1)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은 2011년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하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부름.

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책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았음을 밝혔다. 따라서 2006년 제1회 ‘책 읽는 청주’에서는 지역적 특성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보편적 한국적 정서를 그리고 있으며, 고전이면서도 신선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을 포괄하는 다양한 독자층에 적합한” 책으로 평가된 이미륵 선생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선정하며, 어른들은 전혜린 역 『압록강은 흐른다』 (서울: 범우사 1961), 어린이와 청소년은 엄혜숙 역 『압록강은 흐른다』 (서울: 계수나무 2002)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청주시립도서관 2006, 4-5). ‘One Book, One Chicago’ 같은 미국의 대표적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도 책 선정 기준을 제시했지만,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책을 선정하기 어려움을 밝힌 바가 있고(Chicago Public Library 2001), ‘책 읽는 청주’ 또한 원칙을 존중하되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책을 선정하였다 (윤정옥 2008, 67).

‘책 읽는 청주’의 책 선정 원칙은 2015년 제4차 추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도서
- ② 지역주민 공동의 관심사를 다룬 도서
- ③ 연령별·시대별 구분 없이 접근성이 좋은 책
- ④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접근이 쉬운 책
- ⑤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책
- ⑥ 반드시 양서나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다 (청주시립도서관 2015, 21).

이후 2016년 제5차 회의에서는 다음 원칙이 추가되었다.

- ⑦ 특정 종교가 나타나는 작품일지라도 특정 종교를 배타적으로 취급하거나 강조하는 성격이 아닌 경우(청주시립도서관 2019, 18).

‘책 읽는 청주’의 책 선정 원칙이 거듭 개정되면서 원래 제시된 “다양한 연령층, 관심 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기준은 사라졌다. 기본적으로 “토론이 가능한 책”이라는 원칙은 유지되었으나, 함께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 측면을 강조했던 원칙이 “연령별·시대별 구분 없이 접근성이 좋은 책”과 같이 물리적 접근이나 입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원래 미국에서 인쇄본이어도 양장본이나 엮가본 책, 큰 활자책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었거나 점자책, 전자책, 스트리밍 등으로도 접근 가능한 매체 등(ALS 2003)을 의미했던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접근이 쉬운 책”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나, ‘책 읽는 청주’에서 이러한 매체 다양성이나 접근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선정된 책들은 없다. 실제로 책을 청주시립도서관이 직접 배포하면서 인쇄본 외 다른 접근 경로를 제공한 적도 없다. 다만 기존 선정 책을 점자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선정된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이지 책 자체의 선정 기준과는 무관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에 종교와 관련된 원칙까지 추가된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특정 종교를 “배타적으로 취급하거나 강조하는 성격”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였지만, 왜 하필 종교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제시했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2016년에는

이처럼 ‘책 읽는 청주’의 책 선정 기준이 변화하였고, 기본적 운영 방향 자체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책 선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변화는 ‘책 읽는 청주’가 처음에 선언한 취지나 목표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2.2 지역적 특성

‘책 읽는 청주’에서 큰 변화는 최초의 책 선정기준에서 다소 문제가 되었던 ‘지역적 특성’이란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 선정기준에서 ‘되도록 청주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 책’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청주의 지역적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책의 선정 범위를 매우 좁게 제한할 소지가 있었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위한 ALA 지침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거나 지역 출신 작가가 쓴 책이 지역 주민들의 즉각적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ALA 2003, 16). 하지만,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별 주나 도시 단위로도 지리적 규모가 크고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동시에 개별 지역출신 작가 집단의 규모도 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책을 선정하면서 지역성을 우선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책 읽는 청주’의 이 기준이 “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도서, ② 지역주민 공동의 관심사를 다룬 도서...”로 수정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책 읽는 청주’ 초기에 선정된 책들에서 굳이 지역적 특성이나 연고를 언급하자면 2007년 2회에 선정된 심윤경 작가의 『나의 아

름다운 정원』에서 주인공 소년 한동구의 할머니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향인 ‘충북 괴산의 노루너미’ 마을 정도를 끌어낼 수 있겠다. 사실 관련된 지역은 청주도 아니고 같은 충청북도에 속한 곳일 뿐이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 정서를 담고 있다고는 하겠다. 그러나 이 책은 “이야기꾼인 작가의 뛰어난 말맛, 글맛이 가득한 데서 오는 읽는 재미”와 더불어 “초등학생 소년이 화자이므로 문장이 어렵지 않아 어른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독자가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게”(청주시립도서관 2007b, 5) 읽을 수 있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지역성과는 무관하게 선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책 읽는 청주’에서 선정된 어느 책도 특별히 지역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5회에 선정된 한상숙 작가의 『당신의 손』과 2015년 15회에 선정된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은 작가들이 청주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였거나 활동했다는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적 특성이나 연고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이 원칙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작가의 책을 우선 선정하지는 의견(청주시립도서관 2019, 44)이 거듭 제기되는 발미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책 읽는 청주’가 시작되자마자 청주 지역신문에서는 충북지역 문인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동양일보 2007). 이 기사에서는 “청주시가 나서서 홍보해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앙문단이나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가져와 읽게 한다”고 비난하며, ‘책 읽는 청주’를 “청주의 문인이 브랜드화 되어 청주 문인과 청주에서 간행한 도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는 '책 읽는 청주'의 목표가 "작가의 문예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독서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쉽게 가져다" 읽는 중앙 문단이나 독서계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잊혀졌던 『압록강은 흐른다』와 『나의 아름다운 정원』 같은 뛰어난 작품들을 발굴함으로써 오히려 이 책들이 '책 읽는 청주'를 통해 전국에 더 알려지게 되었다고 자부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07a, 28). 하지만 이후에도 지역 문단이나 언론의 지적은 거듭되었고, '책 읽는 청주'를 지역 안으로 가두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 읽는 청주'에서 지역적 특성은 책의 선정보다 선정된 책을 활용하는 행사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으면서 청주를 상징하는 하천을 빌어 '무심천은 흐른다'는 주제로 수필을 공모했던 것이나, 2016년 16회에 선정된 승효상 건축가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를 읽으면서 '청주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는 제목의 특별전시회를 연 것 등이 그런 사례이다. 어떤 책을 선정하든 책이 다루는 주제 안에서 지역과 관련된 가치를 끌어내고, 만약 주민의 특별하고 고유한 정서와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여 토론회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2.3 역대 선정 책

'책 읽는 청주'에서 그동안 선정한 책들과 토론회 현황은 다음 <표 1>에 볼 수 있다. 우선 역대 선정 책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20년

까지 모두 31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었고, 그 가운데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어린이 대상 책은 6권, 2019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청소년 책 2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대상 책 23권 가운데 고미숙 작가의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2007년, 3회)와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2015년, 15회)은 통상 청소년 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로 '책 읽는 청주'에서 선정된 청소년 책은 모두 4권이다. 다음에서는 이 책들의 내용 및 장르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소설과 비소설

'책 읽는 청주'에서 일반 대상으로 선정된 책은 모두 23권이며, 그 가운데 소설이 12권, 비소설이 11권이 포함되어 있다. '책 읽는 청주'는 대체로 1년에 2회 진행할 경우 한 번은 소설, 한 번은 비소설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에 진행된 6회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하반기의 7회에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을 선택함으로써 두 번 연속 소설작품을 선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까지 계속 그렇게 선정하였다. 반면에 1년에 1회만 진행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에는 유현준의 『어디서 살 것인가』(22회)와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23회)를 각각 선정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비소설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최종 책의 선정 전 후보 책들의 면모를 보면 처음부터 소설이나 비소설 작품을 선정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22회 일반 부문 후보 책 5권 중 소설이 2권, 비소설이 3권이었고(책 읽는 청주 2019, 23), 그 가운데 비소설 『어디서 살 것인가』가 선정되었

〈표 1〉 '책 읽는 청주'의 선정 책과 토론회: 2006년-2020년

연도	회차	서명	저자	장르	대상	일반토론		청소년/ 어린이 토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6	1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소설	일반	-	-	1	-
2007	2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소설	일반	4	-	1	-
	3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고미숙	비소설	일반	4	-	1	-
2008	4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비소설	일반	4	-	1	-
	5	당신의 손	한상숙	소설	일반	7	-	5	-
2009	6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소설	일반	5	-	7	-
	7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소설	일반	5	-	6	-
2010	8	덕혜옹주	권비영	소설	일반	6	108	10	287
	9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비소설	일반	5	90	9	155
2011	10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비소설	일반	-	-	10	-
2012	11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소설	일반	10	190	10	235
2013	12	간송 전형필	이충렬	비소설	일반	12	235	8	215
2014	13	나홀	이현수	소설	일반	12	225	11	305
2015	14	보이지 않는 집	백희성	비소설	일반	6	91	9	170
	15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소설	일반	9	94	5	141
2016	16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송효상	비소설	일반	13	109	12	181
	17	소금	박범신	소설	일반	9	92	7	100
2017	18	시를 읽은 그대에게	정재찬	비소설	일반	12	124	13	281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비소설	어린이	-	-	1	15
	19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소설	일반	15	167	7	86
사춘기 가족		오미경	소설	어린이	-	-	1	20	
2018	20	열한계단	채사장	비소설	일반	18	220	7	125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박현경	소설	어린이	-	-	6	155
	21	오늘의 민수	김혜정	소설	일반	9	119	16	178
하룻밤		이금이	소설	어린이	-	-	3	168	
2019	22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비소설	일반	12	201	-	-
		체리 새우: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소설	청소년	-	-	19	252
		독립군 소녀 해주	이규희	소설	어린이	-	-	10	171
2020	23	역사의 쓸모	최태성	비소설	일반	-	-	-	-
		뉴스, 믿어도 될까	구본권	비소설	청소년	-	-	-	-
		나야, 미호종개	김정애	소설	어린이	-	-	-	-

다. 2020년 23회에도 일반 부문 최종 책은 비소설인 『역사의 쓸모』로 결정되었지만, 후보 책 6권 중에는 4권의 비소설 및 소설인 김진명 작가의 『직지』와 김지혜 작가의 『역사의 쓸모』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부문 후보 책 5권 중에는

소설 2권, 비소설 3권이 포함되어있고, 어린이 책 부문 후보 책 5권에는 소설 4권, 비소설 1권이 포함되어 있었다(청주시립도서관 2021). 매 회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여러 책들을 후보로 두고 도서선정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논의와

시민들 의견 수렴의 결과로 최종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읽을 책으로 소설이 적합한가 비소설이 적합한가에는 그동안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다. 대체로 소설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독자와 토론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삶의 사건들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고록(ALA 2003, 16) 같은 비소설 작품도 함께 읽고 이야기하기에 적합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2017년까지 20년 간 1,200여 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735권 가운데 530권(72.1%)이 미국의회도서관 분류체계 상 ‘P (언어 및 문학)’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옥 2017, 55). 소설이 절대적으로 선호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에서 지역사회 고전문학독서 운동으로 진행되는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이하 NEA Big Read라 부름)는 2006년 시범사업부터 추천 책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들도 대부분 소설이지만, 시, 에세이, 회고록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NEA Big Read 초기부터 추천되었다가 2020년 현재는 지원 대상 책에서 빠져 아카이브로 이동된 27권 가운데 미국 National Book Award 자서전 부문 수상작인 Brother, I'm Dying (Edwidge Danticat), 시집 Selected Poetry (Robinson Jeffers)와 Great Tales and Poems (Edgar Allan Poe)를 제외한 24권은 모두 소설이다(NEA Big Read, 2021c). 또한 현재 책 목록에 포함된 33권 가운데 희곡 Our Town (Thornton Wilder), In the Heart of the Sea (Nathaniel Philbrick), 자서전 Lab Girl (Hope

Jahren) 등 6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설이다(NEA Big Read, 2021d). 특별히 NEA Big Read 2021-2022 지원자들을 위해 제시된 책 5권 중 An American Sunrise (Joy Harjo) 등 4권은 소설이고, The Best We Could Do는 비소설 자서전이다.

이처럼 전형적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든 NEA Big Read에서든 함께 읽을 책으로서 절대적으로 소설을 선호하였고, 국내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도 소설이 선호됨이 확인되었지만(우윤희, 김종성 2014), ‘책 읽는 청주’는 소설과 비소설을 거의 대등하게 채택한 편이다.

(2) 유명 작가와 베스트셀러

‘책 읽는 청주’는 책의 선정에서 유명 작가의 책이나 베스트셀러를 선호하는지,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좋은 책을 발굴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일관성 있는 방향을 보여주진 않는다. 다만 개정된 책의 선정 기준에서는 “반드시 양서나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오히려 양서나 베스트셀러가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책이어도 선정될 수는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동안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진행한 많은 지역사회에서 유명 작가들의 책을 선정함으로써 더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다(ALA 2003, 15).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강한 흥미를 돋우는 문제, 등장인물, 주제”를 가진 어떤 책이라도 선정할 수 있고, 베스트셀러라서 선호하거나 역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책 읽는 청주’의 시행 초반에는 이미류 선생

의 『압록강은 흐른다』(2006년, 1회), 고미숙 작가의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2007년, 3회),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2009년, 7회),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2010년, 9회)와 같이 우리 고문학 및 근·현대문학작품 중 그 자체가 고전이거나 고전을 다룬 책들이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잘 알려지거나 대중적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가 가진 뛰어난”을 이유로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하였던 것이나(청주시립도서관 2007a, 27), 2010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고전”으로 “책 읽는 청주”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잘 손대지 못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선정한 것(청주시립도서관 2008, 34)처럼 크게 화제성을 갖지 않았으나 좋은 책을 골라내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2010년 이후에는 이런 책들보다는 신간이며 베스트셀러의 화제성 혹은 유명 작가의 가시성을 갖는 책들이 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책 읽는 청주’에서 선정된 책들 중 특정 시점의 베스트셀러 혹은 화제성을 띤 책은 여행가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2008년, 4회),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2009년, 6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2011년, 10회),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2012년, 12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2017년, 19회), 채사장의 『열한계단』(2018년, 20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당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대단한 베스트셀러였고, 저자는 다른 작가들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초대해야 하는 유명 인사였다. 실

제로 저자의 유명세에 따라 작가 방문 등에 예년에 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기도 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08). 그러나 ‘책 읽는 청주’에 대한 일시적 가시성의 고양 외에는 독서나 토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이후 ‘책 읽는 청주’의 참여율이 더 높아졌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디서 살 것인가』 같은 최신 베스트셀러들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베스트셀러의 유명 작가가 직접 청주를 찾음에 따라 이른바 지역 내 ‘문화적 갈등’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기회가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행사의 가시성을 넘어서서 원래 ‘책 읽는 청주’가 지향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얼마나 더 확산시킬 수 있었는지, 나아가 독서진흥의 효과가 얼마나 더 커지게 되었는지는 측정하기는 어렵다.

3.2.4 운영 방식의 변화

‘책 읽는 청주’가 지난 14년 동안 23회까지 진행되면서 책 선정 원칙, 연간 진행 횟수 및 행사 대상의 변화 등 눈에 띄는 몇 가지 운영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특별히 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령별 책의 구분

‘책 읽는 청주’에서 큰 변화들 중 하나는 2017년부터 행사 대상을 변경하고, 어른과 어린이 부문을 나누어 연령에 따라 책을 따로 선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주시의 2016년 10월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서, ‘책 읽는 청주’ 시민독서운동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이후에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여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당

시 청주시장은 “책 읽기 습관은 어린 시기에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책 읽는 청주’ 시민독서운동도 어린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표도서 선정 시 어린이용 도서를 함께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일반 부문과 아동 부문으로 책을 나누어 선정하기 시작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14). 2017년과 2018년에는 연 2회씩 개최하면서, 매회 읽을 책을 일반 부문과 아동 부문으로 나누어 두 권씩을 선정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연 1회 개최로 축소하면서 다시 연령층을 세분하여 청소년 부문을 추가하고 읽을 책을 모두 세 권 선정하였다.

이처럼 연령별 구분이 시작되면서 결국 ‘책 읽는 청주’는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독서 및 토론을 진행하고,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집중성을 갖게 되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향점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일반적 독서진흥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연령대 독자들을 위하여 각각 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많은 독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실제 이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활동들이 있어왔고, 청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4). 그러나 원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모델이 단순히 특정 연령층의 독서진흥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책을 구심점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 시점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일순간에 방향이 바뀐 것은 긍정적이라 하기 어렵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독서진흥의 측면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어른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소통할 계기를 만들고자 했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모델을 채택한 ‘책 읽는 청주’(청주시립도서관 2017, 4)의 의미가 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선정하는 ‘한 권의 책’은 나중에 그 책 자체나 책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심점이 된다. 예를 들어, NEA Big Read에서도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패널 토론, 강연, 영화 상영 등 그 책의 내용 및 주제에 의하여 영감을 받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형적임을 예시한 바 있다(NEA Big Read 2021b).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Greensboro Public Library는 2002년부터 격년으로 ‘One City, One Book’을 진행하면서, 선정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전 지역사회에서 그 책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동적 프로그램, 토론, 영화, 무대공연, 독서 등 활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Greensboro Public Library 2021). 이처럼 전형적으로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성이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책 선정 방식을 비롯하여 한 번 채택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 사례들을 찾기 어렵지 않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Seattle Public Library는 처음부터 매년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한 권씩 선정하여 읽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는 ‘Seattle Reads Isabel Allende’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하면서, 예년과 같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가

Allende의 작품 7권을 읽은 적이 있다(Seattle Public Library 2020a). 그러나 2005년부터 다시 원래대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원칙으로 돌아갔다. 특히 처음부터 “같은 책을 읽는다는 기초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 사이를 연결”한다는 목표(Seattle Public Library 2020b)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후에도 계속 그 기준에 따라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오래 지속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들에서 ‘한 권의 책’이라는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One Book, One Chicago’의 경우는 첫해인 2001년부터 4월과 9월, 일 년에 두 차례 각각 한 권씩 책을 선정하여 약 한 달 동안 집중적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한 권의 책과 더불어 ‘하나의 주제(one theme)’를 택하여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거의 연중 내내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를 탐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선정 주제는 모든 시카고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당연히 문학작품 속에 다루어진 주제에 대해서 논하지만, 개인적 경험이나 정치에 반영되었거나 음악과 예술에 표현된 주제 측면에서도 논하면서 배움과 참여의 기회로 확장하고 있다(Chicago Public Library 2021a). 이에 ‘One Book, One Chicago 2019-2020’은 The Sixth Extinction (Elizabeth Kolbert)을 ‘One Book, One Chicago’ 30번째 책으로 선정하였고, 이번 시즌의 프로그램은 ‘Season for Change’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행사를 진행하였다(Chicago Public Library 2021b). 한 권의 책 및 그와 연계된 하나의 주제로써 집중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2) 분산의 영향

‘책 읽는 청주’에서는 연령층에 따라 책을 다르게 선정함으로써 분산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2017년 18회에 선정된 일반 대상 정재찬 작가의 『시를 읽은 그대에게』와 어린이 대상 고병권 작가의 『생각한다는 것』, 19회에 선정된 일반 대상 『82년생 김지영』과 어린이 대상 오미경 작가의 『사춘기 가족』, 이 책들 사이에는 아무런 주제적 일관성이나 연결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2018년 20회와 21회에 각각 선정된 책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책의 분산은 실제로 ‘책 읽는 청주’ 일정 진행의 어려움을 야기했고, 결국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9년에는 기존 연 2회로 진행되던 행사를 연 1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연 2회, 책 4권에 대하여 책의 선정부터 작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 운영이 급박하여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43). 실제로 2017년 이전까지 매회 일반 대상 독서토론인 ‘책과 함께 공감 토크’가 10여 차례 이루어지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토론회’도 10여 곳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동 부문이 분리된 후 어린이 토론회 및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토론회’까지 5-6회씩 진행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토론회의 횟수가 늘어났다. 또한 작가 초청 북 콘서트 등도 매회 2차례 이상 진행하고, 각 책 및 연령대에 알맞은 전시회, 공모전 등 부대 행사를 두 부문에서 진행하였다.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가 전체 행사를 결정하고, 도서선정위원회가 책을 선정하지만, 청주시립도서관 사서들이 전체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업무 과중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원래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전형적 모델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주관하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의 구성원들이 파트너가 되어 재정적 지원 및 시간과 재능 기부 등을 통해 협력하며 주관하는 형태이다(ALA 2003, 10). 많은 사례들에서 특히 행사와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책 읽는 청주’의 대부분 행사는 청주시립도서관이 주관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찾아가는 청소년 토론회’ 등 각종 독서토론에 독서지도사나 서평가 등을 섭외하여 파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민(民)보다는 관(官)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실무자인 청주시립도서관은 책의 분산에 따라 기획, 섭외 등 모든 부문에서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결국 여러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책 읽는 청주’는 2019년부터 연 1회로 횟수를 줄이도록 결정하였고, 대신에 청소년 부문을 신설하여 매년 3권의 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운영실무의 과부하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이한 연령대의 독자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 “성인 눈높이에 가까운 도서는 청소년이 읽기 다소 어렵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도서는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두 계층을 아우르는 도서를 고르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청주시립정보도서관 2019, 43).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산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여전히 각 연령대 책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지적도 가져왔다. 2019년 22회 ‘책 읽는 청주’에 대한 시민 평가는 “청소년 부문이 신설되어 읽기 능력에 따라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정된 책

인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중학교 학생을 다루고 있어, 고등학생에게는 공감도가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아동 부문에 선정된 이규희 작가의 『독립군 소녀 해주』는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읽기에는 배경지식 및 해독력에 수준 차이가 있어... 저·고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나누어 2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52). 이러한 긍·부정 평가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결국 일반, 청소년, 어린이 부문으로 연령대를 세분해도, 각 연령대 안에서 독서 기호와 능력 수준이 상이한 독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연령대를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책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예시하는 것이다.

‘책 읽는 청주’의 연령대별 각 부문 책은 주제가 분산되어 있다. 2019년 각 부문별 선정 책은 서로 아무런 관련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 부문 책 『어디서 살 것인가』는 주거문화를 주제로 하고, 청소년 부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청소년 성장과 관계를 주제로 하며, 어린이 부문 『독립군 소녀 해주』는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다시 2020년 선정 책을 보면 여전히 주제 분산을 볼 수 있다. 일반 부문 책 『역사의 쓸모』는 역사를 주제로 하고, 청소년 부문 『뉴스, 믿어도 될까』는 뉴스, 말하자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하며, 어린이 부문 『나야, 미호종개』는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들 각각은 매우 크고 무거운 주제이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다른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이 각각 상이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도 균등한 비중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연령대로 나누더라도 책들의 주제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사를 진행할 때, 집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독서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일반 부문 책도 읽을 수 있고, 어른과 청소년이 같은 주제를 어떻게 같거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야기하면서 세대 간 소통 및 공감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책 읽는 청주’ 초기의 책 선정 기준에서 지향하던 바이다. 앞서 언급한 ‘One Book, One Cihcago’와 같이 한 권의 책과 더불어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책 읽는 청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실제적 행사 진행에서 주제 분산의 영향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2019년은 제22회 ‘책 읽는 청주’ 선포식을 마침 그해 청주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선포식과 함께 진행함에 따라, 작가초청, 각종 토론회 및 독후활동 공모전 외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0년 제23회 ‘책 읽는 청주’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각 책과 관련된 각 연령대별 활동은 통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인 소토론회인 ‘책과 함께 공감 토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토론회’ 및 ‘어린이 토론회’를 비롯하여, 청주시립도서관 등 도서관 5개소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된 ‘아동도서 깊이 읽기’, 책 읽는 시범학교인 초·중·고등학교 14개교에서 이루어진 독서 릴레이 등이 진행되었다. 결국 연령대 별로 따로따로인 행사들로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토론

회였기 때문에 다른 행사 진행 시 제한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책의 분산은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매년 발행되는 ‘책 읽는 청주’ 보고서에 청주시가 지원하는 실행 예산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선정 책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실행 예산을 두 배나 세 배로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책 읽는 청주’는 매년 선포식, 작가초청강연회, 계층별 토론회(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특별토론회, 공모전 등을 기본 행사로 진행한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4). 아울러 토론 워크북을 2,000부씩 제작할 뿐 아니라, 북클럽 독서릴레이를 위해 배포하고 지역 내 북카페 등에 비치할 일정 부수의 책을 구입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토론회’나 초등학교 ‘어린이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에서 요청 시 진행자로 토론가이드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9차례 진행된 ‘찾아가는 청소년 토론회’ 중 13회에 진행자를 지원했고, 10회 진행된 ‘어린이 토론회’에는 전회에 진행자를 지원했다. 이 진행자들은 사서나 자원 활동가가 아니라 청주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청주’를 위해 섭외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독서지도사 같은 직업인들이다. 토론회가 늘어나면서, 토론가이드에 대한 비용 지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보통 ‘책 읽는 청주’ 선포식 같이 필수적 행사에 배정된 예산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상 선정 책 수가 늘어나면 작가 초청 등에 지출할 예산 또한 비례하여 늘어나게 된다. 그럴 경우 각 책의 구입 부수나 독서토론 워크북의 제작 부수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이 영

향을 미치는 부문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2017년 19회에는 독서토론 워크북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1,000부만 제작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7, 42). 보통 20 페이지 안팎으로 제작되는 독서토론 워크북에는 '책 읽는 청주' 소개, 선정 책과 작가 소개, 토론거리,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영화 소개, 행사 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독서토론 워크북은 토론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사전에 청주시 곳곳에 배포됨으로써 홍보도구 역할도 한다. 2019년부터 '책 읽는 청주'가 다시 연 1회 진행되면서 다행히 독서토론 워크북도 2,000부 제작으로 환원되었지만, 이전에 한정된 예산의 영향이 있었음은 추론이 가능하다.

3.3 독서토론

'책 읽는 청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선정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책"이란 원칙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책 읽는 청주'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인 북클럽 독서토론, 청소년 및 어린이 독서토론회뿐만 아니라 청주교도소 재소자 토론회, 군부대 토론회, 공무원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특별독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3.3.1 연령대별 독서토론회

(1) 일반인 독서토론

'책 읽는 청주'에서 처음부터 가장 핵심적이었던 일반인 대상 독서토론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반 북클럽 교차토론회로 진행되었

고, 2009년 6회 행사부터는 일반 북클럽 소토론회 '책과 함께 공감토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클럽 교차토론회는 여러 개의 북클럽 동아리 회원들이 한데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2006년 제1회 '책 읽는 청주'에서는 각 토론회별 3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모두 4차례 열렸다(청주시립도서관 2006b, 27).

〈표 1〉에 보는 것처럼 2006년 1회와 2011년 10회 통계는 빠져있지만, 대체로 '책 읽는 청주' 시행 초반 몇 년간 매회 4-5차례 진행되었던 북클럽 토론회가 2012년 11회부터 십여 차례 안팎으로 늘어나고, 다소 들쭉날쭉 하지만 매회 적게는 백여 명에서 최대 이백여 명까지 독서토론 참여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 제1회 '책 읽는 청주' 당시 2006년 10월에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5-10명으로 구성된 북클럽 회원을 모집하여 학교(초·중·고) 동아리 34개, 일반(대학생 포함) 동아리 136개, 직장 동아리 15개를 구성하였고, 전체 회원은 1,110명에 달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06b, 10). 이때 결성된 동아리들이 모두 토론회를 했거나 이후에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책 읽는 청주'를 통해서 기존의 도서관 내 독서토론 그룹을 넘어선 시민 독서토론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책 읽는 청주'가 연 1회만 진행되었던 2013년 12회와 2014년 13회는 각각 12차례 독서토론 '책과 함께 공감토크'에 235명과 225명이 참여하여 회당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 2회를 진행한 2015년에는 상반기 14회와 하반기 15회에 각각 6회 토론에 91명, 9회 토론에 94명만 참여하여 역대 가장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

여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상반기, 채사장의 『열한계단』을 읽었던 20회 행사에는 모두 18회의 독서토론에 220명이 참여하여, 연 2회 진행되었던 ‘책 읽는 청주’중 가장 많은 토론 참여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 김혜정의 『오늘의 민수』를 읽었던 21회에는 9회의 독서토론에 절반 정도인 119명이 참여하였다. 토론 참여자의 숫자만을 기록하는 ‘책 읽는 청주’ 보고서를 통해서만 하반기에 참여 인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직접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상반기 책에 비하여 저자나 책의 인지도, 화제성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도서관 및 지역 내 북카페 등에서 담당자들이 기획해야 했던 ‘책과 함께 공감토크’ 횡수를 실무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책과 함께 공감토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독서토론회가 아니라, ‘책 읽는 청주’ 행사로 기획된 독서토론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책 읽는 청주’ 자체에서 준비한 토론회 횡수가 적어서 참여자 수도 적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책 읽는 청주’의 일반인 독서토론에는 대체로 매 토론회 당 열 명 안팎의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전체 참여자 수의 지속적 증감에 어떤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매회 토론에 누가 참여하는지, 참여하는 시민들 가운데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떤지 등 토론회 구성원의 질적인 측면은 파악하기 어렵다.

(2)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토론

‘책 읽는 청주’에서는 2006년 1회부터 2008년 4회까지는 청소년 토론회가 1회씩 진행되었

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자유토론이기보다는 학생대표로 선발된 소수의 중·고등학생들의 패널 토론회 형태였다. ‘책 읽는 청주’는 이후 청주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내 몇 개의 중·고등학교를 ‘책 읽는 시범학교’로 정하고, 2009년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토론회’란 이름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6개교, 2014년에는 8개 중·고등학교를 ‘책 읽는 학교’로 지정하였고, 2017년에는 어린이책 부문을 신설하면서 6개 초등학교를 ‘책 읽는 청주와 함께 하는 책 읽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독서릴레이 등 프로그램과 토론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두 24회의 대표도서 수업과 토론에 583명, ‘책 읽는 교실’에 1,626명이 참여하는 등 괄목할만한 참여 증가세를 보여주었다(청주시립도서관 2017, 49-50).

2019년에는 18개 중·고등학교에서 19차례의 독서토론에 모두 252명이 참여하였고, 8개 초등학교에서 10차례의 독서토론에 171명이 참여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9, 33-35). 어린이 및 청소년 토론회에는 참여 학교 및 참여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토론참여 희망자 20명 내외로 토론회 개최를 원하는 학교를 지원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책 읽는 청주’를 통해 함께 책을 읽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참여자 증가라는 정량적 측면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다만 토론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각 토론회에 참여 어린이 수가 많게는 30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능력 증진이라는 정성적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한 번이라도 독서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음 번 ‘책 읽는 청주’에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자발적 및 지속

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3.3.2 특별토론회

‘책 읽는 청주’는 일반인 및 청소년, 어린이 대상 독서토론 외에 다양한 형태의 특별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6회에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지역에 소개한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의 소집단 특별토론회를 처음 진행한 이래, 특별히 2014년 이후부터는 매회 청주교도소 재소자 대상 특별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3월 청주시립도서관은 청주교도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관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5, 40). 매회 재소자 참여자는 6-8명 정도이지만, 이처럼 지역의 특수한 시설에 토론 가이드를 지원하고 꾸준히 독서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책 읽는 청주’의 특징이 되고 있다.

2010년 9회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특별토론회’, 2011년 10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으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하는 특별토론회’, 2012년 11회에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 “두근두근” 특별토론회’, 2016년 17회에 『소금』을 읽으면서 ‘00중학교 아버지와 아들 특별토론회’ 등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독서토론을 진행했다. 이런 형태의 독서토론은 ‘책 읽는 청주’가 처음부터 표방한 “다양한 연령층, 관심 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하고자 했던 목표에 부합한다. ‘책 읽는 청주’는 그밖에도 2012년 11회, 2013년 12회, 2016년 16회 및 2017년 19회에 청주시장과 함께 하는 공무원 및 시민 특별토론회를

가졌고, 2016년 17회에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의 특별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3년 12회에는 『간송 전형필』을 읽으면서 현직 예술가와 함께 하는 ‘간송 전형필 藝·魂 특별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병영 내 독서토론이나 농촌이나 산업시설 종사자 등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확대는 ‘책 읽는 청주’ 1회 당시부터 제안된 사항이지만,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독서토론만큼 진전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3.3.3 사서의 역할

‘책 읽는 청주’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청주시립도서관을 위시하여 공공도서관의 존재감과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책 읽는 청주’의 핵심적 활동인 독서토론의 진행에서 사서의 존재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양한 그룹의 독서토론들 중,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토론이나 교도소 재소자 특별토론회 등에 외부 서평가나 독서지도사들을 토론 가이드로 지원함으로써, 사서 자신은 실무 기획자나 일정관리자 역할만을 수행한다. 십여년 이상 ‘책 읽는 청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서들이 처음부터 각종 독서토론의 진행자로서 참여했다라면, 책과 독서 전문가로서 사서들의 역량과 존재감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가깝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의 과부하 상태에서 사서들이 직접 모든 진행의 전면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사서들이 ‘책 읽는 청주’ 배후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써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보다 향상

되었을 것이다.

물론 ‘책 읽는 청주’에서 사서들이 종종 직접 참여하는 부문이 있다. 특히 책의 선정 및 준비 과정에는 사서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책 읽는 청주’의 대표 책 선정과정은 우선 사서를 비롯하여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 지역 내 국어교사, 문화부 기자 등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책을 추천 받고, 후보 대상 책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주시립도서관 사서들은 매회 도서선정위원회 검토 및 시민투표에 부지기 전에 후보대상 책들을 검토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1차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에서 후보 대상 책들 중 5배수의 후보 책들을 고르고, 이 책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및 서점 투표, 설문지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여 각 부문별로 상위 순위 3권씩을 결정한다. 이후 2차 추진위원회에서 각 부문에서 최종 대표 책을 선정하게 되는데(청주시립도서관 2020, 18), 이 과정에는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외에는 사서들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역대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에 청주시립도서관 산하 공공도서관 관장들이 한두 명씩은 참여함에 따라 최종 책의 선정에 도서관계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 ‘책 읽는 청주’ 초대 추진위원회에는 당시 청주기적의도서관장이 참여하여, 지역의 CJB청주방송 라디오에서 특집생방송으로 진행된 최초의 ‘책 읽는 청주 대표도서선정 배틀 북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독서토론 워크북 작성을 맡았다(청주시립도서관 2006).

이후에도 계속 여러 청주시립도서관 산하 관장들이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에 번갈아 참

여하였다. 2017년 당시 추진위원회에는 청주오송도서관장이 참여하였고, ‘책 읽는 청주’ 후보 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 읽는 청주 대표도서선정 배틀 북스’ 프로그램에서 추진위원 자격으로 출연하여 일반부문 후보 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7, 23). 그 해 하반기 19회에는 같은 프로그램에 사서가 시민대표로서 후보 책을 소개하기 위해 출연하였다(청주시립도서관 2017, 38). 그러나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대표들이 출연하여 어린이 부문 후보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매번 사서 대신 지역 내 독서지도사가 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프로그램에 사서가 더 많이 참여한다면, ‘책 읽는 청주’가 출범 취지에서 지향했던 것처럼 도서관과 사서가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지난 1998년 이래 벌써 이십여 년 간 전통적 독서라는 개인적 경험을 사람들 간 소통과 공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60여 개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실행하였고,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개인적(정서적·지식습득)으로 읽는 독서를 사회적독서(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고 나누는/사회공헌) 중심으로 전환”(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7)이라는 새로운 독서 패러다임의 확산을 국가적

독서진흥의 지향점으로 삼게 되었다. 국내에서 초기에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시작한 지역 사회들 가운데 하나인 청주시의 ‘책 읽는 청주’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23회 행사가 진행되었고, 모두 31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었다.

‘책 읽는 청주’는 전형적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모델을 채택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성인 대중이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소통능력 및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가졌다.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여 좋은 책 한 권을 함께 읽음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생각을 나누고자 했던 ‘책 읽는 청주’의 취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책 선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어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별로 각각 책을 선정함으로써 변화하게 되었다. 연령별 분산에 따라 상이한 연령층의 독서수준과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이점을 갖게 되었으나,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서 ‘한 권의 책’에 대한 집중성과 구심점이 약화되며 여느 공공도서관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또한 매회 후보 책의 선정부터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 책의 선정까지 과정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한편,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좋은 책을 선정하려고 시도했던 초기와 달리 신간 베스트셀러나 유명작가 책들의 가시성과 대중성을 반영하는 책들이 종종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설과 비소설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선정되었고, 연령별로 따로 선정된 책들은 주제가 분산되어 행사와 프로그램들 또한 분산을 피하기 어렵다.

‘책 읽는 청주’에서는 일반인 ‘책과 함께 공감

토크’,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토론회’ 및 청주교도소 재소자 대상 특별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가 꾸준히 진행된다. 그러나 토론 참여자의 지속적 증가나 각 참여자의 반복적 참여 등 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토론 가이드 역할을 위탁함으로써, 사서가 행사 기획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책과 독서 전문가로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더욱이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청주시립도서관이 진행하면서 전형적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민·관의 협력보다 관의 주도성이 크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의 15년은 지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강점을 갖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책 선정기준 변경의 타당성 부족, ‘한 권의 책’ 대신 연령별 선정 책의 분산, 책들의 주제적 일관성 결여, 가시적 및 대중적 베스트셀러의 선호 경향, 개별 참여자의 지속성 확인 곤란, 사서의 기획자 역할 집중으로 직접적 토론과 소통 제한, 관 주도형 행사 진행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책 읽는 청주’의 원래 취지와 목표에 비추어 현재 개정된 책 선정 기준의 타당성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종교” 관련 선정기준의 포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물리적 형태와 매체의 다양성 및 접근성 강조는 지금까지 실제 책의 선정에 적용되거나 행사 기획 등에도 전혀 반영된 바 없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으로서 새로 추가된 이유의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한 권의 책’ 선정이라는 ‘한 책, 한 도

시’ 독서운동의 기본 모형을 벗어나 연령별로 다른 책의 선정을 지속하려면, 다른 연령대 간 소통 및 독서토론과 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 등 활동의 집중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몇몇 다른 지역사회에서 채택한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분산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셋째, ‘한 책, 한 도시’ 사업의 실무자이자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배후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가 다양한 형태의 독서토론 및 활동 전면에 직접 더 많이 나설 필요가 있다. 원래 ‘책 읽는 청주’의 시작 당시 지역사회에서 공동도서관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의 가시성 확장이 중요했으나, 실질적으로 ‘책 읽는 청주’가 움직이게 만드는 사서들의 역할 또한 시민들에게 더욱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서 인력의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책 읽는 청주’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독서지도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사서의 역할 면에서 오히려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책과 독서전문가로서 사서의 경험 축적과 전문성이 심화되면 장기적 진행 시 전체적 업무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책 읽는 청주’가 계속 관 주도형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식 개선과 문화적 역량 향상이라는 목표의 계몽성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회 당 기획된 독서토론회 참여자 숫자의 증감으로 성과를 평가하지만, 참여자들의 자발적 및 지속적인 참여도와 충성도, 독서에 대한 실질적 인식

변화 등을 측정함으로써 ‘책 읽는 청주’의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 15년 간 누적된 ‘책 읽는 청주’의 경험이 실질적 지역사회 문화수준 제고 및 독서인구 저변의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연구에서는 살펴 볼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책 읽는 청주’의 독서토론 워크북 및 사업보고서 등 문헌자료의 분석에 집중하면서 사서 실무자나 시민들의 육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책의 선정과 독서토론의 외형적 특성이나 수치 분석에만 집중하며, 내용의 의미 및 그간 진행된 행사나 프로그램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책 읽는 청주’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이며 미시적 평가로 제한되었다는 취약성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책 읽는 청주’ 선정 책과 연관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운영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 역대 실무를 맡은 사서들 및 각종 토론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그리고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책 읽는 청주’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청주라는 한 도시가 가진 경험을 같은 책이나 다른 책을 읽은 다른 도시들의 경험과도 비교하고,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현재 면모를 파악해 보는 것은 향후 추진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데스크에서 -- '책 읽는 청주' 목표 바뀌보자. 『동양일보』. 2007년 10월 7일.
- [2]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309-336.
- [3] 윤희라. 2017. 한국의 대중독서운동 중 '한 책' 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인문학논총』 (동의대학교), 43(8): 193-215.
- [4] 윤정옥. 2009.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311-333.
- [5] 윤정옥. 2012.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71-194.
- [6] 윤정옥. 2013.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47-68.
- [7] 윤정옥. 2017.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과 '한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45-64.
- [8] 윤정옥. 2018.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 10년과 선정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159-178.
- [9] 이국환. 2018. 독서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 연구: '원북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81-110.
- [10] 이용재.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 [11] 이용재. 2008.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47-265.
- [12] 청주시. 2020. "통계정보" "통계로 보는 청주시."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www.cheongju.go.kr/stat/index.do>>
- [13] 청주시립도서관. 2006a. 책 읽는 청주, 『압록강은 흐른다』 워크북.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14] 청주시립도서관. 2006b. 책 읽는 청주 평가보고회. 미간행 발표자료.
- [15] 청주시립도서관. 2007a. 제2·3회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16] 청주시립도서관. 2007b. 책 읽는 청주. 『나의 아름다운 정원』. 워크북.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17] 청주시립도서관. 2008. 제4·5회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18] 청주시립도서관. 2015. 제14·15회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19] 청주시립도서관. 2017. 제18·19회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20] 청주시립도서관. 2019. 제22회 책 읽는 청주 사업보고서.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21] 청주시립도서관. 2020. “장서현황 (기준일: 2020-10-31).”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library.cheongju.go.kr/lib-cj/>〉
- [22] 청주시립도서관. 2021. “제23회 책 읽는 청주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3.17~3.31).”
[online] [cited 2021. 1. 17.]
〈https://library.cheongju.go.kr/lib-cj/images/contents/reading_cj.jpg〉
- [23]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9-202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2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한 도시 한 책 읽기 (참여 도시).” [online] [cited 2020. 12. 30.]
〈<https://www.readin.or.kr/home/onecity/organizationList.do>〉
- [2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online] [cited 2021. 1. 18.]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 [26] Chicago Public Library. 2021a. “About OBOC.” [online] [cited 2021. 1. 6.]
〈<https://www.chipublib.org/about-oboc/>〉
- [27] Chicago Public Library. 2021b. “Previous OBOC Titles. The Sixth Extinction: One Book, One Chicago 2019-2020.” [online] [cited 2021. 1. 12.]
〈<https://www.chipublib.org/the-sixth-extinction-one-book-one-chicago-2019-2020/>〉
- [28] Greensboro Public Library. 2021. “One City, One Book.” [online] [cited 2021. 1. 11.]
〈<https://library.greensboro-nc.gov/books-media/one-city-one-book>〉
- [29] NEA Big Read. 2021a. “About the NEA Big Read.” [online] [cited 2021. 1. 10.]
〈<https://www.artsmidwest.org/programs/neabigread/about>〉
- [30] NEA Big Read. 2021b. “About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online] [cited 2021. 1. 10.]
〈<https://www.arts.gov/initiatives/nea-big-read/about-big-read>〉
- [31] NEA Big Read. 2021c. “Big Read Books Archived.” [online] [cited 2021. 1. 10.]
〈<https://www.arts.gov/initiatives/nea-big-read/archive>〉
- [32] NEA Big Read. 2021d. “NEA Big Read.” [online] [cited 2021. 1. 10.]
〈<https://www.arts.gov/initiatives/nea-big-read>〉
- [33] Santa Monica Public Library. 2020. “Santa Monica Reads.” [online] [cited 2020. 12. 30.]
〈https://smpl.org/citywide_reads.aspx〉
- [34] Seattle Public Library. 2020a. “Seattle Reads Past Years.”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seattle-reads-past-years>〉
- [35] Seattle Public Library. 2020b. “About Seattle Reads.”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about-seat>〉

tle-reads>

- [36] Seattle Public Library. 2020c. "About Seattle Reads: 2019."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www.spl.org/Seattle-Public-Library/documents/programs-services/authors-books/SeattleReads/2019_SeattleReads-toolkit-online-version.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At the desk -- Change the goal of 'Reading Cheongju'. *Dongyang Daily*, 2007.10.07.
- [2] Woo, Yun-Hee and Kim, Jong-Sung. 2014.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309-336.
- [3] Youn, You-Ra. 2017. "A Case Study on one of the Public Reading Campaigns in Korea, the 'One Book' Campaign: an Analysis of 'a Book of Gimhae' Project." *The Journal of Humanities (Dongui University)*, 43(8): 193-215.
- [4] Yoon, Cheong-Ok.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311-333.
- [5] Yoon, Cheong-Ok. 2012.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47-68.
- [6] Yoon, Cheong-Ok. 2013.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27.
- [7] Yoon, Cheong-Ok. 2017. "An Analysis of 'One Book's Selected in Twenty Year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45-64.
- [8] Yoon, Cheong-Ok. 2018.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10 Years of 'The Big Read' Reading Initiat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159-178.
- [9] Lee, Kook-hwan. 2018. "A Study on 'One Book, One City' as a Reading Movement." *Seokdang Nonchong*, 72: 81-110.
- [10] Lee, Yong-Jae. 2006.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the Reading Campaig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 Book, One City' Projects."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5-25.

- [11] Lee, Yong-Jae. 2008.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47-265.
- [12] Cheongju City. 2020. "Statistics Information." "Cheongju City Viewed in Statistics."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www.cheongju.go.kr/stat/index.do>>
- [13] Cheongju City Library. 2006a. *'Reading Cheongju' Yalu Discussion Workbook*.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14] Cheongju City Library. 2006b. *Final report of 'Reading Cheongju'*. Unpublished presentation.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15] Cheongju City Library. 2007a. *The 2 · 3rd 'Reading Cheongju' Final Report*.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16] Cheongju City Library. 2007b. *'Reading Cheongju' My Beautiful Garden, Discussion Workbook*.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17] Cheongju City Library. 2008. *The 4 · 5th 'Reading Cheongju' Final Report*.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18] Cheongju City Library. 2015. *The 14 · 15th 'Reading Cheongju' Final Report*.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19] Cheongju City Library. 2017. *The 18 · 19th 'Reading Cheongju' Final Report*.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20] Cheongju City Library. 2019. *The 22nd 'Reading Cheongju' Final Report*. Cheongju: Cheongju City Library.
- [21] Cheongju City Library. 2020. "Collection Statistics (Date: 2020-10-31)." [online] [cited 2020. 12. 23.] <<https://library.cheongju.go.kr/lib-cj/>>
- [22] Cheongju City Library. 2021. "Cheongju Citizens' vote for the 23rd 'Reading Cheongju' book selection (3.17~3.31)." [online] [cited 2021. 1. 17.] <https://library.cheongju.go.kr/lib-cj/images/contents/reading_cj.jpg>
- [23]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3rd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19-2023*.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4]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0. "'One city, One Book' Reading (Participating Cities)." [online] [cited 2020. 12. 30.] <<https://www.readin.or.kr/home/onecity/organizationList.do>>

